

# 정부간행물의 효율적인 장서개발을 위한 인용분석

- 대전·충청지역 전문대학을 중심으로 -

공주대학교 도서관  
이 연 희

## 〈 목 차 〉

I. 서 론	IV. 인용결과 분석
II. 정부간행물의 정의 및 유형	V. 결 론
III. 정부간행물의 발행 및 유통체계	참고문헌

## Citation Analysis of Government Publications for Effective Collections Development

Youn - Hee Lee

The government publications which are issued to make publicity for the policy of the nation and to ensure people's rights to be informed by the government have been greatly increased in quantity because of the extension of roles and functions of the government.

For researchers involved in the scientific study the government publications are the primary materials with reliability and authority in specialty as well as the most comprehensive information sources which can be sought all information in the fields of politics, economy, society and culture.

The purpose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is to examine the use conditions of the government publications through citation analysis on references contained in the collection of 14 professional university libraries in the area of Taejon and Chung - nam provinces. Second, it is to find the type of materials, issuing cycle, and current use of the government publications that have been frequently cited in papers of researchers in the field of social science. Furthermore, this study intends to suggest important standards in establishing the effective collection of the government publications of the professional university libraries to meet the various user's needs.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There are 14,243 literatures cited in 649 papers in the field of social sciences and, of them, 2,210 government publications are cited, resulting in 15/3% of the total reference literatures.

2. As a results of analyzing types of materials with 2,210 government publications cited in papers in the field of social sciences, it shows such orders as general publications(23.3%), reports(20.5%), and periodicals(17.4%) that is chiefly used by researchers.

3. When it comes to analyzing government publications cited by issuing institution, it finds that it is mainly used government publications issued from the ministry of administration(36.5%), government - related agencies(31.3%), government invested agencies(11.2%), local government(11.1%).

4. It examines the use conditions by issuing cycle of government publications to find current literature cited. The results show that it cited most of 2-3 year old materials and less a year old materials since they were issued, with very little difference between them.

## I. 서 론

현대사회는 다양한 기관, 단체, 출판사 등에서 여러 가지 형태와 주제의 정보를 폭발적으로 생산하고 있다. 경제학자 포라트(Porat)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정보를 생산하고 배포하며 동시에 소비하는 단일기관은 정부라고 하였다.<sup>1)</sup> 정보사회에서는 정부의 역할과 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정부기관이 정보생산에 있어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고, 정부의 정책수립과 집행과정에서 축적되는 각종 행정정보를 국민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부간행물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정부간행물은 정부가 국민에게 국가정책을 알리거나 국민에 대한 의무이행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매체이고 국가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한 방안으로 발행되고 있으며, 신뢰성과 객관성을 지니고 있어 학술적인 연구를 행하는 연구자들에게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가장 포괄적인 정보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일반간행물과는 다른 고유한 특징을 갖는 정부간행물이 가장 포괄적인 정보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관건은 도서관과 같은 정보유통기관이 얼마나 효율적인 통로역할을 하며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

공하느냐에 달려 있다. 도서관에서 이용자의 다종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자관에 적합한 자료를 계획적이고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유용한 장서를 구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정연구자들에게는 연구의 중요한 1차 정보원이 되기도 하며 일반 국민에게는 정부와 국민간의 의사전달매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정부간행물<sup>2)</sup>은 4년제 대학에 비하여 예산이 부족한 전문대학에서는 적은 비용으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중요한 참고자료이다. 그러나 정부간행물이 생산 후 배포·이용에 이르는 동안 원칙 및 조직체계의 미흡과 서지자료의 부족으로 발행되는 자료의 파악이 어렵고, 도서관에 정부간행물이 수집·정리되어 이용자에게 제공되기까지 많은 불편이 따르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대부분의 정부기관에서는 중소규모의 지방대학 및 전문대학은 정부간행물 배포대상에서 제외하여 서울 및 대도시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부간행물의 소외지역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참고문헌의 인용분석을 통하여 전문대학에서의 정부간행물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사회과학 연구자들의 연구논문에서 빈번히 인용되는 정부간행물의 자료유형과 주요 발간기관 및 자료의 최신성 등을 파악하고자 한다.

정부간행물의 이용실태 조사를 위해서는

1) Jo Bell Whitlatch. "Government publication." RQ, 18(1979), p.391

2) 신숙원, 이순자. 도서관과 자료의 활용법. (서울 : 서강대학교 출판사, 1992), pp. 138-139.

대전·충청지역의 14개 전문대학<sup>3)</sup> 논문집을 대상으로 인용문헌을 분석하였다. 인용분석은 인용분석 대상 논문을 주제에 따라 사회과학분야와 기타분야로 구분하여 기초조사를 실시한 후, 정부간행물을 비교적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난 사회과학분야로 한정하였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전국의 전문대학 중 대전·충청지역 전문대학만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과 사회과학이라는 주제에 한정하였다는 점이다.

## II. 정부간행물의 정의 및 유형

### 2.1 정부간행물의 정의

정부간행물에 대한 정의는 정부를 보는 관점에 따라 그 해석을 달리할 수 있다. 정부는 광의와 협의의 개념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협의로서 정부의 개념은 행정부만을 지칭하는 것이며, 광의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각 부처 및 각 위원회, 지방자치단체와 소속관청의 부속기관, 연구소, 정부투자기관을 포함한다.

허논(P. Hemon)과 맥클러(C. R. McClure)<sup>4)</sup>는 “국가정보의 범위는 넓고 정의 또한 명확하게 내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 형태나 규모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고 하였듯이 정부간행물에 대한 정의는 국가나 기관마다 약간씩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정부간행물에 대한 문헌적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제도서관협회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 : IFLA)<sup>5)</sup>은 “공적인 기관에서 발행되고 일반인들에게 이용되는 자료로서 공적 기관에 대한 한계는 각국의 관례에 따른다”고 밝히고 있다.

미국도서관협회(American Library Association : ALA)용어사전<sup>6)</sup>에는 “법률상 조직된 정부기관이나 국제기구의 권한으로 비용을 부담하여 발행되는 간행물이다.

흔히 정부문서(government documents), 공공문서(public documents), 문서(documents) 등의 명칭으로 사용되기도 한다”라고 정의되어 있다.

일본의 도서관학·서지학 사전<sup>7)</sup>에서는 “법적 근거를 지닌 관청조직의 사무소가 그 출판물의 경비를 부담하고 또한 허가를 얻어

3) 대전·충청지역의 전문대학은 모두 20개교이나 대학 설립연도가 5년 미만인 대학(2개교)과 대학 논문집을 발행하지 않거나 중단된 대학(4개교)을 제외한 14개 전문대학 즉, 공주문화 대학, 공주영상정보대학, 극동대학, 대덕대학, 대전보건대학, 신성대학, 연암축산원예대학, 우송공업대학, 주성대학, 천안공업대학, 청주과학대학, 충청대학, 혜전대학, 혜전대학에서 지난 5년 간(1995-1999) 발표된 논문을 인용 분석하였다.

4) P. Hemon and C. R. McClure, "GPO" Depository Library Programs : Building for the Future," Library journal, Vol.113 (1988), p.52. 사공복회, 문승주, "우리나라 정부간행물의 유통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도서관학 논집 제26집(1997년 여름호), p.95에서 재인용.

5) IFLA, IFLA official publication section newsletter 12, 1984,

6) ALA. The ALA Glossary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Chicago : ALA., 1983), p.106

7) 植村長三郎 編著, 圖書館學·書誌學辭典. (東京 : 有隣堂印刷株式會社出版部, 1967), p.99.8

인쇄·발행한 출판물”이라고 되어 있다.

도서관학·정보학 용어사전<sup>8)</sup>에는 “정부 및 정부기관이 발행하는 출판물로서 총서나 단행본일 수 있다. 국가간 정부간행물 교환에 관한 유네스코 회의에서는 의회문서, 의회보고서, 잡지,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자료 및 보고서, 국가서지, 법전, 법원의 판례 등을 정부간행물로 규정하고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부간행물은 적용범위가 넓고 다양하여 정의를 내리기가 상당히 어렵다. 상술한 내용을 토대로 정부간행물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는, “정부간행물이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를 포함한 중앙정부 및 각 위원회,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지방정부 및 그 산하단체와 정부투자기관 및 재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에서 정부의 예산으로 발행되는 모든 간행물”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간행물의 유형은 주제나 내용에 따라 다양하며, 간행물의 형태 또한 도서 및 비도서를 포함한 모든 간행물을 통칭한다.

정부간행물은 대부분 행정기관이 자체기능의 수행과정 또는 그 결과로 산출된 부산물로서 정치, 경제, 외교, 교육, 사회, 문화 등의 실태와 이에 대한 시책 등을 반영하고 있는 공식적이고 합법적, 실제적인 자료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 흔히 정부기능의 거울로 간주되기도 한다. 특히 요즘 들어 공개행정의 확대 실시, 혹은 행정정보의 공개와 관리 등에 관

한 논의가 확대되면서 국민의 알권리(right to know)와 정부의 알릴 의무를 동시에 만족시켜야 하는 공공성과 보편성의 자료로 부각되고 있다.<sup>9)</sup>

이러한 정부간행물의 특징과 기능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국가기능의 확대와 광범위한 조직으로 인해 그 부산물인 정부간행물의 내용 및 주제 역시 경제, 법률, 사회복지, 교육, 사상, 언어 등 인문·사회과학을 비롯해 환경과 산업 및 과학기술 등의 자연과학분야 그리고 문화, 예술 등 지식 및 학문의 전 분야에 걸쳐 포괄적이고 다양해지고 있다.

② 정부간행물은 정부기관의 신뢰성과 공공성을 반영하고 있어 일반 상업출판물이나 다른 간행물에 비해 비교적 그 권위가 인정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출판사나 민간기관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대규모 사업의 결과를 수록한 간행물도 있다.

③ 정부간행물은 주로 시의 적절한 주제들을 수록하고 있어 정보원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즉, 사회생활의 여러 현상과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척도가 되고 있으므로 국가 정책의 입안 및 수행 그리고 발전과정을 파악하는데 귀중한 정보원이다.

④ 정부간행물의 형태는 매우 다양하다. 즉, 다양한 유형의 인쇄자료와 필름, 지도, 차트 등의 비도서 자료를 비롯해 근래에 들어서는 디스켓, 광디스크와 같은 전자형태의 자

8) 사공철 등편, 도서관학·정보학 용어사전. (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1986), p.188

9) 배영환, “한국 정부간행물의 발간 실태분석과 이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서관 Vol.49, No.1(1994년 봄), p.24

료에 이르기까지 다종다양하게 생산되고 있다.

⑤ 정부간행물은 대다수 정부가 그 저작물의 내용에 대해 지적, 저작권적 책임을 갖고 있는 동시에 발간 및 배포 등에도 직접 관여하고 있어, 간행물의 저자와 출판사, 배포자가 동일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⑥ 정부간행물은 정부조직의 확대 및 통·폐합 등으로 발행기관의 명칭변경 등을 포함한 서지사항의 변화가 빈번하다.<sup>10)</sup>

정부간행물의 주요 기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공공정책의 내력과 취지를 제공
- ② 정부계획의 문서화를 통한 공공성과 입법화를 보증
- ③ 과학적, 경제적 문제점에 관한 연구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
- ④ 진행중인 공공계획의 효과적 집행을 보증
- ⑤ 정부부처 내의 효과적인 운영을 보증
- ⑥ 국사(國史) 및 정부이해의 토대를 형성
- ⑦ 외국정부간행물을 수집, 활용하기 위한 국제교환의 수단으로 이용 등을 들 수 있다.<sup>11)</sup>

본 연구에서는 정부예산으로 발행되는 모든 간행물을 정부간행물<sup>12)</sup>로 보았으며,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에서 생산되는 자료와 비도서 형태의 정부간행물은 제외하였다.

## 2.2 정부간행물의 유형

정부간행물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양적인 면 뿐만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 그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 정부간행물은 국정과 관련된 공식기록물로서 정부의 시책과 활동상황을 홍보하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친 동태를 파악할 수 있는 가장 포괄적인 정보제공 수단이다. 또한 각계각층을 위한 다양한 주제의 자료가 생산되며 형태 또한 다양하기 때문에 정부간행물의 유형을 나눈다는 것은 쉽지가 않다.

정부간행물은 구분방법에 따라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타나는데 보통은 일반간행물과 마찬가지로 1차 자료와 2차 자료로 구분하거나, 혹은 단행본과 정기간행물 또는 도서와 비도서 자료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발행기관, 주제, 언어, 간기, 배포방법(유가, 무가)이나 간행물의 외형 등에 따라서 여러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sup>13)</sup> 정부간행물에 대한 유형구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발행기관에 따라서 행정부자료, 입법부자료, 사법부자료 등으로 구분한다.

둘째, 간행물의 용도에 따라서 단순한 행정기록자료, 전문가를 위한 연구자료, 일반인을 위한 정보자료로 나눈다.

10) 배영환, 전계논문, pp.24-25.

11) 배영환, 전계논문, pp.24-25)

12) 본 연구에서는 국정홍보처에서 발행한 「정부간행물목록」에 제시된 정부부처 및 산하단체,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단체, 정부투자기관, 정부유관기관을 대상으로 하였다.

13) 사공복희, 문승주, 전계논문, p.5

셋째, 간행물의 저작자를 기준으로 개인저작, 공동저작, 단체저작, 공무원이 직무상 저작한 직무저작, 정부기관이 제3자에게 의뢰하여 저작한 위탁저작, 그리고 정부기관 자신이 저작물이나 기존의 저작물을 편집한 편집저작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sup>14)</sup>

이밖에도 분류의 기준으로 간행내용에 따라, 배포가능성 여부에 따라 기록의 형태나 자료의 외형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정부간행물을 가장 포괄적으로 구분한 예로는 Rips<sup>15)</sup>를 들 수 있는데, 그는 정부간행물을 행정보고서 (Administrative Reports), 통계보고서 (Statistics Reports), 위원회보고서 (Committee & Commission Reports), 조사·연구보고서 (Report of Investigation and Research), 의안 및 결의안 (Bills & Resolutions), 청문회자료 (Hearings), 의사록 (Journals & Proceedings), 법률 및 법령 (Laws & Statutes), 판례집 및 의견서 (Decisions & Opinions), 규칙, 규정 및 편람 (Rules, Regulations and Manuals), 인명록 (Directories), 서지, 목록 (Bibliographies & Lists), 일반정보자료 (General and Descriptive Information), 보도자료(Press Releases), 정기간행물 (Periodicals), 지도 및 차트 (Maps & Charts), 필름 및 시청각 자료 (Films and AV Materials)로 구분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정부간행물의 유형을 국정홍보처의 정부간행물자료실에서 사용하는 “정부간행물유형분류표”에 따라 구분하였다. “정부간행물유형분류표”에서는 정부간행물을 20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sup>16)</sup>

- |           |              |
|-----------|--------------|
| 1. 의회자료   | 2. 법령자료      |
| 3. 사법자료   | 4. 국제간자료     |
| 5. 편람     | 6. 통계자료      |
| 7. 백서     | 8. 연감        |
| 9. 공보자료   | 10. 특허자료     |
| 11. 보고서   | 12. 연설·강연    |
| 13. 홍보자료  | 14. 교육자료     |
| 15. 기록자료  | 16. 총서·연속간행물 |
| 17. 일반간행물 | 18. 지도·차트류   |
| 19. 시청각자료 | 20. 서지자료     |

### Ⅲ. 정부간행물의 발행 및 유통체계

#### 3.1 정부간행물의 발행

정부의 규모가 방대해지고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높아감에 따라 국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정부간행물의 출판량 또한 증가하고 있다. 정부간행물은 정부재원으로 발

14) 홍명자, “정부간행물 관리에 관한 고찰 : 제도적 측면에서”, 효성여자대학교 연구논문집 ; 사회과학편. 제24집 (1982). p.465.

15) Rae Elizabeth Rips, “United States Government Publications”, Drexel Library Quarterly, Vol.1, No.4 (Oct. 1965). pp.7-10. 배영환, 전계논문, pp.26-28에서 재인용.

16) 국정홍보처 국립영상간행물제작소, 1999년판 정부간행물 목록. (서울 : 국정홍보처, 1999).

행된 간행물이므로 영리를 목적으로 출판된 일반간행물과는 다른 저자의 특수성, 내용의 특수성, 간행과 배포의 특수성 등과 같은 여러 가지 특징을 지니므로 정부간행물의 관리에 있어서도 이러한 특징을 고려한 취급이 필요하다.<sup>17)</sup>

정부간행물은 일반간행물과는 다른 인쇄와 간행 방식을 갖고 있다. 이들 방식은 크게 4가지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간행물의 인쇄, 간행이 전문적인 정부기관에 의하여 일원적으로 행해지는 방법으로, 정부간행물 관리의 능률화, 통제화 정도모할 수 있으므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일원화된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과 영국이 대표적으로 영미형이라고 한다.

둘째, 인쇄기관과 간행기관이 별도의 정부기관으로 설립되어 각기 인쇄, 간행을 분담하여 인쇄와 간행이 이원적으로 조직되어 있지만 간행기관이 통일기관으로 일관한 경우에는 집중적 관리를 행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은 주로 인도와 파키스탄이 채택하고 있다.

셋째, 통일된 간행기관에서 인쇄를 담당하고 간행은 각 정부기관이 개별적으로 행하는 방법, 혹은 역으로 간행기관에서 통일적으로

간행업무를 담당하고 인쇄는 개별적으로 행하는 방법으로, 한 기관이 통일기관으로 일관할 경우 집중관리가 가능하다.

넷째, 인쇄와 간행을 위한 통일된 기관이 없이 각 정부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수행되는 분산적 관리로 효율적인 정부간행물 관리를 기대하기가 곤란한 비조직적인 체제이다. 이 유형에 속하는 나라로는 프랑스, 독일, 벨기에, 스페인, 스웨덴, 일본, 한국 등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으며 대륙형이라 지칭한다.<sup>18)</sup>

우리나라는 위의 4가지 방법 중 대륙형을 채택하고 있어 정부간행물 관리가 비체계적이고 비조직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다. 때문에 대부분의 기관에서는 발행기관에서 임의로 정한 인쇄소나 상업출판사에 의뢰를 하여 정부간행물을 발간하였으므로 일관성이나 통일성과는 거리가 먼 방법으로 정부간행물을 제작하여 왔다.<sup>19)</sup>

이러한 문제 즉, 정부간행물이 비체계적이고 비조직적인 방법으로 관리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1991년 공보처 산하에 정부간행물제작소<sup>20)</sup>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현재 국립영상간행물제작소는 정부간행물의 인쇄와 간행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설립된 전담기구라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

17) 黒木努, 政府刊行物 概説. (東京: 帝國地方行政學會, 1971), p.23.  
 18) 박금순, "정부간행물의 도서관 배포제도에 관한 고찰: 납본도서관 및 납본제도를 중심으로," 도서관학 연구지 (승의여전), 18(1992.9), p.147  
 19) 강미혜, "정부간행물의 출판현황과 도서관의 정부간행물 운영실태분석" 도서관학논집 제23집 (1995), p.84  
 20) 현재는 국정홍보처 산하에 국립영상간행물제작소로 변경되었다. 국립영상간행물 제작소는 1993년부터 매년 「정부간행물목록」을 발간하여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 등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정부 유관기관에서 발간한 각종 백서, 연감, 통계자료, 법령자료, 업무자료, 홍보자료 등에 대한 書誌정보를 수록하고 있다. 이 목록은 간행되고 있는 정부간행물 중 어떤 내용이, 어느 기관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등의 서지정보를 필요로 하는 정부간행물 이용자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이 목록은 인터넷을 통해서도 제공하고 있다.

고 국정홍보처에서 간행되는 자료만을 제작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매년 발간하고 있는 「정부간행물목록」조차도 각 기관에서 보내주는 자료에 의존해 목록을 작성하므로 우리나라에서 발행되고 있는 정확한 정부간행물의 목록 및 출판된 수를 알 수 없는 상태이다. 이는 국립영상간행물제작소가 법적인 강제성 및 타 기관에 미치는 영향력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으로서 정부간행물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를 하는 일원화된 기구로서의 역할에 문제점을 나타내는 것이지만, 점진적으로 정부가 정부간행물의 유통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와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갖고 정부간행물의 인쇄와 발행을 통합하여 운영한다면 유사자료, 중복자료의 발간으로 인한 인적자원 낭비 및 예산절감의 효과와 더불어 구조적인 정부간행물의 유통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 3.2 정부간행물의 유통체계

정부간행물은 특성상 유상배포와 무상배포로 나뉘어져 일반간행물의 유통체계와는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간행물의 유통방식은 무상배포, 유상배포, 자료제출에 의한 배포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정부간행물의 경우는 그 발행비용이 정부의 예산 즉, 국민의 세

금으로 충당되기 때문에 대부분 무상으로 배포되고 있으며, 일부만이 유가로 판매되고 있다.

#### 3.2.1 무상배포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행되고 있는 대부분의 정부간행물은 무가로 각 발행기관에서 무상으로 배포하고 있다. 무상배포 대상은 법률에 의해 조직된 정부기관, 공공 단체, 대학도서관, 공공도서관, 정부유관기관 등이며, 관련 연구기관과 같은 단체와 관계전문가 등 일부 개인도 무상배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무상으로 배포되는 정부간행물은 정부간행물이 발행기관에 따라 비조직적이고 비체계적으로 발행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배포에 있어서도 배포처 선정 시 원칙과 기준이 없이 주로 기존의 배포리스트, 행정관행, 그리고 배포담당자의 주관에 따라 배포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어 정부간행물을 필요로 하는 적재적소에 배포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sup>21)</sup>

그리고 정부간행물의 배포기준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도 배포기준이 포괄적이고 애매 모호하게 규정되어 담당자의 판단이나 행정관행에 따라 배포될 여지가 많다. 때문에 자료와 전혀 상관이 없는 기관에 배포가 되어 귀중한 자료가 제 가치를 발휘하지 못하고 사장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며<sup>22)</sup>, 그와 반대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도서관이나 소규모의 지방대학 도서관은 배포대상에서

21) 조영주, 정부간행물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1994. 석사학위논문, p.7

22) 조영주, 전개논문, p.18



제외되어 지방에서 필요한 정부간행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일반 이용자는 각 발행기관에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도움을 받거나, 큰 규모의 대학도서관, 또는 유가 정부간행물을 판매하는 서점에 비치되어 있는 자료를 이용해야 하는 어려움이 뒤따른다. 이와 같이 정부간행물을 필요로 하는 연구자들이 겪고 있는 자료 입수에 따르는 어려움은 김영신<sup>23)</sup>의 연구에 잘 나타나 있다. 김영신의 연구에 의하면 정부간행물을 입수하기 위하여 연구자가 직접 2곳 이상 방문하는 비율이 80%이며 35.7%의 연구자는 개인적으로 발간 정부기관을 방문하거나 3곳 이상의 서울 소재 도서관을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간행물은 한정된 부수만을 제작하여 배포하기 때문에 기 배포된 자료를 입수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한 번 배포대상에서 누락이 되면 계속적으로 해당기관에서 발행하는 정부간행물을 받기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 3.2.2 유상배포

정부간행물의 유상배포는 정부간행물판매 보급규정<sup>24)</sup>이 폐지되기 전까지는 정부간행물 판매센터에서 정부간행물 조정심의위원회가 결정한 가격에 판매하였다. 그러나 1998년

12월 정부간행물 판매센터보급규정과 정부간행물조정심의위원회가 폐지<sup>25)</sup>되어 전국의 어느 서점에서나 정부간행물을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정부간행물 판매에 따른 이익률 저조로 영세서점에서는 현실적으로 판매가 어려운 상황이며, 발행기관 또한 정부간행물의 유가판매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가지 번거로움 때문에 위탁판매를 회피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때문에 유가 정부간행물의 발행 종 수는 매년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sup>26)</sup> 실제로 판매되고 있는 정부간행물의 종 수는 극히 제한되어 있고, 판매되고 있는 양 또한 저조하여 유가간행물을 필요로 하는 이용자는 유가간행물을 이용하기가 더욱 더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한 악순환 현상은 지방으로 갈수록 더욱 심해 정부간행물의 중앙집중화 현상이라는 어이없는 결과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지방에 있는 일반 이용자는 유용한 정부간행물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 정부간행물에 대한 소외감마저 느끼고 있어 유상배포를 통한 공평한 정보접근과 정보공유라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 3.2.3 자료제출에 의한 배포

우리나라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과 국회

23) 김영신, 비통보식 조사를 통한 대학도서관 참고봉사 평가.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95. 박사학위논문. p.47

24) 정부간행물판매보급규정, 총리령 제73호, 1969년 7월 24일 개정 : 총리령 제151호, 1975년 6월 21일 20) 현재는 국정홍보처 산하에 국립영상간행물제작소로 변경되었다. 국립영상간행물 제작소는

25) 1998. 12. 18, 23일자 관보 참조

26) 1998년에 간행된 정부간행물은 총 4,338종으로 이 중 무가 간행물은 3,396종으로 78.3%를 차지하였고, 유가 간행물은 942종으로 21.7%를 점유하여 유가간행물의 양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도서관법<sup>27)</sup>에 의해 국내에서 발행되는 모든 자료는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 및 국정홍보처에 제출해야 한다. 자료제출이란 제도는 국내에서 생산된 간행물을 국가에서 법률이 정한 특정기관에 의해 수집·정리하도록 하여 일반 국민에게는 서지정보를 제공하고, 국가차원에서는 출판경향을 파악하고 서지통정을 하는데 매우 중요한 제도이다.

그러나 자료제출 제도를 실시하는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자료제출 제도 실시에 따른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발행기관 측의 자료제출에 대한 이해부족을 들 수 있다. 자료제출을 통해 정부간행물의 전체적인 자료의 주제, 유형 및 간행물의 종 수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도구가 된다는 사실의 인식부족으로 자료제출이 제대로 행해지지 않는다.

둘째, 자료제출에 대한 법 조항은 있으나 강제성의 결여로 일반 출판사에 비해 정부기관의 자료제출률이 저조한 실정이다.

셋째, 정부간행물을 제출하여야 하는 기관은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국정홍보처

등 여러 기관으로 되어있다. 때문에 자료제출 기관이 일원화되어 있지 않고 절차 또한 복잡하여 자료제출 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다.

넷째, 자료제출에 따른 보상이 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는 예산이 충분하지 않다는데 원인이 있지만 그보다 자료제출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데 더 큰 원인이 있다고 생각된다.<sup>28)</sup>

정부관계부처는 위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을 직시하여 형식적인 자료제출이 아닌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자료제출이 될 수 있도록 강제성을 띤 법 제정 및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자료제출을 유도한다면, 좀 더 완전하고 체계를 갖춘 자료제출이 이루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정부간행물의 유통 개선에 있어서도 일부분을 담당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본 장에서 다룬 정부간행물의 발행 및 유통과 관련된 문제점들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간행물을 생산함에 있어 이를 관리·감독하는 일원화된 기구가 없어서 상당

27)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법률 6126호, 2000. 1. 12 개정

제2장 국립중앙도서관 제17조 (자료의 제출)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서, 연속간행물, 음반, 비디오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할 때에는 그 발행 또는 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자료 2부를 국립중앙도서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때에는 그 발행 또는 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자료 2부를 국립중앙도서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수정증보판을 발행하거나 제작한 때에도 또한 같다.

국회도서관법 1999. 12. 15 개정

제7조 (자료의 제공 및 納本) ① 國家機關, 地方自治團體, 기타 公共團體 및 教育, 研究 機關이 圖書, 連續刊行物, 멀티미디어 資料 기타 規則이 정하는 立法情報支援이나 國際 交換에 필요한 資料를 발행 또는 製作한 때에는 그 발행 또는 製作日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資料 10부를 圖書館에 제공하여야 한다.

28) 조영주, 전거서, p.21

히 비조직적이라 할 수 있다. 정부에서는 정부간행물의 인쇄와 간행을 일원화하기 위해서 국정홍보처 산하에 국립영상간행물제작소를 설치하였으나, 법적인 강제성 및 타 기관에 미치는 영향력의 한계로 정부간행물의 전담관리라는 본래의 설립취지와는 다르게 서지정보만을 제공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둘째, 정부간행물의 발행 시 기관마다 통일된 편집정책을 갖고 있지 못해 편집목적이 불분명한 경우가 많으며, 동일기관에서도 편집자가 바뀌면 제호(題號) 및 편집형태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 통일성과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셋째, 정부간행물 배포 시 일정한 원칙과 체계를 갖고 있지 못해 정부간행물의 사장(死藏)현상 및 소외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간행물을 발행하는 기관에서는 배포처를 선정할 때 원칙과 기준이 없이 각 발행처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배포처가 정해지거나, 행정관행 또는 배포담당자의 주관에 따라 배포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때문에 관련이 없는 기관에 자료가 배포되어 귀중한 자료가 제가치를 발휘하지 못하고 사장되거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도서관이나 소규모 지방대학 도서관은 배포대상에서 제외되어 정부간행물 소외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정부간행물은 한정된 부수만을 제작하여 배포하므로 기 배포된 자료를 입수하기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넷째, 유가로 배포되는 정부간행물의 종수와 부수가 한정되어 유상배포를 통한 공평한 정보접근과 정보공유라는 본래의 취지가 상

실되었다. 정부간행물의 발행 종 수는 매년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정부간행물 판매에 따른 이익을 저조와 발행기관이 위탁판매를 회피하는 경향까지 나타나 유상배포되는 유가판매량은 점점 낮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악순환 현상은 지방으로 갈수록 더욱 심해 정부간행물의 중앙집중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다섯째, 자료제출에 대한 이해부족과 강제성 결여, 자료 제출처의 분산 및 자료제출에 따른 보상제도의 인식부족으로 자료제출의 실효성이 극히 저조하다.

## IV. 인용결과 분석

### 4.1 기초자료 분석

본 장에서는 최근 5년 간 (1995-1999) 14개 전문대학에서 발행한 대학논문집을 대상으로 교수들의 정부간행물 이용실태를 조사·분석하였다. 조사분석 대상 논문 수는 총 1,881편으로 이를 주제에 따라 사회과학 분야와 기타분야의 논문으로 구분하였다.

#### 4.1.1 분야별 분석

조사분석 대상 논문 수 총 1,881편에서 인용된 참고문헌 총 33,124개를 학문분야별로 사회과학분야와 기타로 구분하여 연구자들의 자료 이용행태를 파악하였다. 구분한 결과 사회과학분야 논문은 649편으로 전체 논문의 34.5%를 점유하였고, 사회과학을 제외한 기

타분야의 논문은 1,232편으로 전체 논문의 65.5%를 차지하였다.

#### 4.1.2 논문 편 당 인용문헌 수

조사대상인 14개 전문대학이 5년 간 발행한 총 논문 편수는 1,881편으로, 이들 논문이 인용한 참고문헌 수는 총 33,124개이며,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편 당 인용문헌 수는 평균 17.6개임을 알 수 있다. 이를 분야별로 알아보면, 649편의 사회과학분야 논문은 14,423개의 문헌을 인용하여, 편 당 인용문헌 수는 22.2 개로 나타났고, 기타분야 논문은 1,232편으로 인용한 참고문헌 수는 18,701개이며 편 당 인용문헌 수는 15.2개로 조사되었다.

위의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사회과학분야 연구자들의 논문 편 당 인용문헌 수는 최은주<sup>29)</sup>의 연구에서, 평소 연구에 참고하는 자료의 수는 응답자의 약 80%가 연구과제 당 11~50종의 자료를 참고하며 평균 참고자료는 1인당 31종으로 나타난 수 보다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유재옥<sup>30)</sup>이 “도서관학 학술지”에서 표본으로

추출된 37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인용분석한 결과에서 나타난 논문 1편당 평균 29.3개의 문헌을 이용한 참고문헌 수보다도 낮다.

#### 4.1.3 언어별 분석

학술정보유통에서 언어의 장벽은 원활한 정보의 유통을 가로막는 큰 원인이 되고 있다. 일본의 한 조사에 의하면 과학기술분야에서 영어가 차지하는 비중은 정보매체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1985년도 Chemical Abstracts에 수록된 문헌에 사용된 언어는 영어 70.8%, 러시아어 13.8%, 일어 4.6% 등으로 나타났다.<sup>31)</sup>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전문대학의 사회과학 연구자들과 기타분야 연구자들이 연구 활동을 위해 이용하는 자료의 의존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총 1,881편의 논문에 나타난 총 33,124개의 인용문헌을 대상으로 자료를 외국서와 국내서로 구분하였고, 외국서는 동서와 양서로 언어별 구분을 하였다. 참고문헌을 외국서와 국내서로 구분하여 분석한 한 이유는, 본 연구에서는 정무간행물의 범위를 국내에서 간행된 자료로 한정하여 분석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이다.

〈표 1〉 분야별 인용문헌 현황

분야 \ 구분	논문 수 (%)	인용문헌 수 (%)	편당 인용문헌 수
사회과학	649 ( 34.5)	14,423 ( 43.5)	22.2
사회과학 외	1,232 ( 65.5)	18,701 ( 56.5)	15.2
계	1,881 (100.0)	33,124 (100.0)	17.6

29) 최은주, “사회과학연구자의 정보이용행태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Vol.30, No4(1996), p.20

30) 유재옥, “도서관학 학술지에 나타난 인용행태 분석,” 정보관리학회지, Vol.10, No.4 (1993. 12), p.152

31) 上田修一等. 理工學文獻の特色と利用法. (東京: 勤草書房, 1987).

<표 2>는 연구자들의 외국서와 국내서의 자료의존도이다.

<표 2> 연구자들의 자료의존도 분석

자 료 구 분		자료의존도 (%)
외 국 서	동 서	1,058 ( 3.2)
	양 서	16,584 ( 50.1)
	소 계	17,642 ( 53.3)
국 내 서		15,482 ( 46.7)
합 계		33,124 (100.0)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인용된 33,124개의 참고문헌에서 외국서는 17,642 (53.3%)개이고, 국내서는 15,482(46.7%)이다. 위와 같은 결과는 최은주<sup>32)</sup>의 사회과학연구자들이 이용하는 외국자료의 의존도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수치<sup>33)</sup>보다 낮고, 유재욱<sup>34)</sup>의 연구에서, 인용문헌 1,083개 자료들을 언어별로 살펴본 결과 나타난 영어 56.7%, 한국어 37.0% 보다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외국서 17,642개의 인용된 자료들을 언어별로 양서와 동서로 구분한 결과, 동서는 1,058(3.20%)개로 일서(日書)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양서는 독일어와 프랑스어로 쓰여진 자료도 극히 일부 포함되나 대부분이 영서이며, 전체 인용문헌 중 16,584(50.1%)개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유재욱<sup>35)</sup>의 연구에서 밝혀진 영어 56.7%, 일본어 3.2%, 중국

어 2.8%보다 영어에 의존하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2>의 결과로 우리나라 전문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연구자들이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참고할 때 일본어나 중국어로 쓰여진 동서보다는 주로 양서를 이용하며 양서 중에서도 영어로 쓰여진 자료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결과는 사회과학연구자들이나 문헌정보학의 연구자들보다는 외국어에 대한 자료 의존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4.1.4 자료유형별 분석

##### 4.1.4.1 전체자료의 유형별 분석

사회과학 연구자와 기타분야 연구자들의 자료 이용행태를 좀 더 상세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인용된 참고문헌 33,124개를 <표 3>과 같이 자료유형별로 구분하였다. 자료유형별 기준으로, 단행본에는 부정기 간행물을 포함시켰으며 학위논문은 석·박사 학위논문만을 취급하고 저널에 실린 학위논문의 경우에는 학술지로 취급하였다. 정기간행물이란 학술지를 제외한 일반잡지를 말하며 대학간행물은 대학에서 간행한 연구논문이 대부분이고, 대학요람 및 대학 홍보자료도 포함된다. 기타자료에는 보고서, 세미나자료, 회의자료 등을 포함하였다.

32) 최은주, 전제논문, p.22

33) 사회과학연구자들이 연구활동을 위해 평소에 이용하는 한국어자료와 외국어자료의 비율을 보면, 10:90이 22.1%로 가장 높고 20:80이 18.3%, 30:70이 17.3%, 50:50이 12.5%로 나타나 외국자료 의존도는 50%가 넘는 비율이 전체 65.4%로 나타났다.

34) 유재욱, 전제논문, pp.153-154.

35) 유재욱, 전제논문, pp.153-154.

〈표 3〉 자료유형별 분석

자료유형		구 분		
		사회과학 (%)	기 타 (%)	계 (%)
외 국 서	서 양 서	5,974 ( 41.4)	10,610 ( 56.7)	16,584 ( 50.1)
	동 양 서	316 ( 2.2)	742 ( 4.0)	1,058 ( 3.2)
	소 계	6,290 ( 43.6)	11,352 ( 60.7)	17,642 ( 53.3)
국 내 서	단 행 본	3,111 ( 21.6)	2,491 ( 13.3)	5,602 ( 16.9)
	정부간행물	2,210 ( 15.3)	1,150 ( 6.2)	3,360 ( 10.1)
	학 술 지	807 ( 5.6)	1,907 ( 10.2)	2,714 ( 8.2)
	학 위 논문	933 ( 6.5)	903 ( 4.8)	1,836 ( 5.5)
	정기간행물	373 ( 2.6)	396 ( 2.1)	769 ( 2.3)
	대학간행물	381 ( 2.6)	336 ( 1.8)	17 ( 2.2)
	기 타	318 ( 2.2)	166 ( 0.9)	484 ( 1.5)
	소 계	8,133 ( 56.4)	7,349 ( 39.3)	15,482 ( 46.7)
합 계		14,423 (100.0)	18,701 (100.0)	33,124 (100.0)

<표 3>에서 알 수 있듯이 사회과학분야 연구자들은 14,423개의 총 인용문헌 중 국내서 8,133(56.4%)개, 외국서를 6,290(43.6%)개 인용하였다. 국내서의 인용은 단행본이 3,111(21.6%), 정부간행물이 2,210(15.3%), 학술지 807(5.6%), 학위논문 933(6.5%), 정기간행물 373(2.6%), 대학간행물 381(2.6%), 기타 318(2.2%)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결과로 사회과학분야 연구자들은 자료의 이용에 있어 기타분야 연구자들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과학분야에서도 외국서의 이용률은 상당히 높지만 기타분야 보다는 낮은 편이며, 국내서 중에서는 단행본과 정부간행물의 이용률이 비교적 높으며, 자료를 이용하는데 있어서도 기타 분야의 연구자들보다 고른 자료유형별 분포를 보이고 있다.

기타분야 연구자들은 18,701개의 총 인용문헌

중 국내서 7,349(39.3%)개, 외국서를 11,352(60.7%)개 인용하였다. 기타분야 연구자들이 인용한 국내서의 인용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단행본이 2,491(13.3%), 정부간행물 1,150(6.2%), 학술지 1,907 (10.2%), 학위논문 903(4.8%), 정기간행물 396(2.1%), 대학간행물 336 (1.8%), 기타 166(0.9%)개로 나타났다.

#### 4.1.4.2 국내서의 자료유형별 분석

1,881편의 논문에서 인용된 총 33,124개의 인용문헌 중 국내자료인 15,482개를 각각 문헌의 형태에 따라 단행본, 정부간행물, 학술지, 학위논문, 정기간행물, 대학간행물, 기타로 분류하였다. <표 4>는 국내서의 자료유형별 분포이다.

참고문헌으로 인용된 국내서는 15,482(46.7%)개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문대학의 연

〈표 4〉 국내서의 자료유형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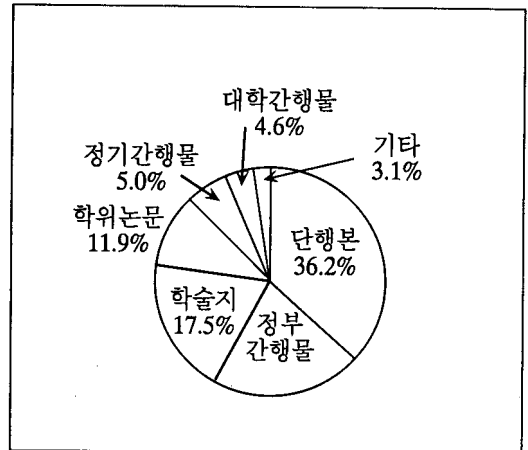
자료 유형	인용문헌 수 (%)
단행본	5,602 ( 36.2)
정부간행물	3,360 ( 21.7)
학술지	2,714 ( 17.5)
학위논문	1,836 ( 11.9)
정기간행물	769 ( 5.0)
대학간행물	717 ( 4.6)
기타	484 ( 3.1)
계	15,482 (100.0)

구자들이 이용한 국내서의 자료유형별 분포를 측정하기 위해 연구자들이 인용한 15,482개의 인용문헌을 총계로 하여 자료유형별로 구분하였다. 구분한 결과 단행본이 5,602(36.2%), 정부간행물이 3,360(21.7%), 학술지는 2,714(17.5%), 학위논문은 1,836(11.9%), 정기간행물은 769(5.0%), 대학간행물은 717(4.6%), 그리고 기타가 484(3.1%)개 인용되었다. 위와 같은 결과로 전문대학에 재직하는 연구자들이 선호하는 국내서의 자료유형은 단행본임을 알 수 있다. 단행본은 전체 15,482개 중에서 5,602(36.2%)개가 인용되어 가장 많은 인용비율을 나타내었으나 다른 자료유형에 비하여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단행본의 인용비율 결과는 최은주<sup>36)</sup>가 사회과학 연구자들이 이용하는 자료의 우선 순위는 정기간행물, 단행본, 신문, 연구보고서, 학위논문이라고 밝힌

것과 차이가 있으며, 유재욱<sup>37)</sup>이 조사한 단행본(47.1%), 저널(40.6%), 논문(3.9%), 기타(8.4%)와 정진식<sup>38)</sup>의 연구에서 밝혀진 단행본(56.2%), 학술잡지기사(30.7%), 논문(8.8%), 보고서(1.5%), 기타(2.9%)의 결과보다도 낮다. 이로써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연구자들이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이용할 때 특별히 선호하는 자료의 유형은 없으며 자료유형별로 고르게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의 결과에서 특이할 만한 사항은 전체 자료 중에서 정부간행물이 3,360(21.7%)개 인용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전문대학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정부간행물의 장서량에 비하여 정부간행물의 이용이 상당히 높은 것임을 알 수 있다.

국내서 인용문헌의 자료유형별 분포현황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인용문헌의 자료 유형별 분포

36) 최은주, 전계논문, p.20

37) 유재욱, 전계논문, p.153

38) 정진식, "사회과학 문헌 인용분석연구 : 경제학, 문헌정보학, 행정학 중심," 정보관리학회지, Vol.10, No2(1993. 12), p.36

위와 같은 인용분석 결과를 토대로 기타분야 연구자들과 사회과학분야 연구자들의 자료유형별 인용문헌 현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과학분야 연구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국내서의 자료유형은 단행본과 정부간행물로 나타났다.

둘째, 외국서의 이용에 있어, 사회과학분야 연구자들의 외국서 이용률이 43.6%인 것에 비해 기타분야 연구자들은 절반 이상(60.7%)이 외국서를 이용하여, 사회과학분야 연구자들보다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이용할 때 국내서보다는 외국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호하는 외국서를 동양서와 서양서로 구분하였을 때는 월등히 서양서의 이용률이 높다. 이는 모든 주요 학문이 미국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대학 연구자들이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외국유학을 한 경험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학술지 이용에 있어서도 기타분야 연구자들은 사회과학분야 연구자들보다 2배 이상 인용하고 있다. 이는 학술지가 좋은 자료를 발견하게 되는 중요한 원천이 되는 이유도 있지만, 전문대학에서 사회과학분야를 제외한 기타분야 대부분이 자연과학을 의미하는 것으로, 학술지의 선호는 최근의 연구추세나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하여야 하는 자연과학분야의 학문 특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 4.1.5 정부간행물의 이용현황

사회과학분야와 기타분야로 나누어서 정부간행물의 이용실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연과학과 인문·예술분야를 포함한 기타분야의 논문은 1,232편으로, 이들 논문에서 인용한 참고문헌은 앞에서 살펴 본바와 같이 18,701개이다. 이 중에서 인용된 정부간행물은 1,150(6.2%)개로 그다지 인용비율이 높은 편은 아니다. 그러나 기타분야의 전체 인용 건수인 18,701개에서 외국서 11,352개를 제외한 국내서 7,349개에서 정부간행물이 1,150개 인용되었다는 것은 기타분야에서도 정부간행물이 차지하는 위치가 중요함을 시사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사회과학분야 논문은 총 649편으로 이들 논문에서 인용한 14,423개의 참고문헌에서 인용된 정부간행물은 2,210(15.3%)개이다. 15.3%라는 점유율은 전체 14,423개에서 정부간행물이 차지하는 비율이고 외국서 6,290개를 제외한 8,133개에서 차지하는 정부간행물의 비율은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과학분야의 연구자 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의 연구자들도 정부간행물을 중요한 참고정보원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 4.2. 사회과학분야 논문의 정부간행물 인용분석

사회과학은 학문의 특성상 자연과학 등과는 다른 고유의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연구자들의 정보 이용행태를 알기 위해서 연구논문의 인용관계를 분석해 보면 그 분야 연구자들의 실제 문헌이용 패턴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간행물의 이용 정도와 이



용 패턴을 조사하기 위하여 정부간행물의 이용도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밝혀진 사회과학 분야 논문의 참고문헌을 분석하였다.

참고문헌으로 인용한 자료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기초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서양서가 5,974(41.4%)개로 가장 많고, 단행본이 3,111(21.6%)개, 정부간행물이 2,210(15.3%)개, 학위논문이 933(6.5%)개, 학술지가 807(5.6%)개, 정기간행물이 373(2.6%)개, 대학간행물이 381(2.6%)개, 동양서가 316(2.2%)개, 기타가 318(2.2%)개이다.

이는 정부간행물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정치학 박사학위논문을 인용 분석한 김영신<sup>39)</sup>의 연구결과 9.68%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과학분야 논문의 참고문헌 인용분석에 따른 자료 유형별 분포는 <표 5>와 같다.

<표 5> 사회과학분야 논문의 자료유형별 분석

자료 유형		인용건수 (%)
외국서	서양서	5,974 ( 41.4)
	동양서	316 ( 2.2)
	소계	6,290 ( 43.6)
국내서	단행본	3,111 ( 21.6)
	정부간행물	2,210 ( 15.3)
	학위논문	933 ( 6.5)
	학술지	807 ( 5.6)
	정기간행물	373 ( 2.6)
	대학간행물	381 ( 2.6)
	기타	318 ( 2.2)
	소계	8,133 ( 56.4)
합계	14,423 (100.0)	

#### 4.2.1 정부간행물의 자료 유형별 인용 분석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부간행물의 자료유형은 “정부간행물유형분류표”에 따라 구분하였다. 정부간행물의 유형은 다양하지만, 본 연구에서 행한 인용분석의 기준은 국립영상간행물 제작소에서 발행한 「정부간행물 목록」에 준하여 정부간행물의 판단여부와 발행기관을 참고로 하였다. 주로 인용된 정부간행물의 유형을 살펴본 결과 통계자료, 연감, 백서, 보고서, 일반간행물, 정기간행물, 편람, 법령, 행정자료, 교육자료, 사법자료, 의회자료, 기타로 나타났다. 인용된 정부간행물의 자료 유형별 분포를 살펴보면 <표 6>과 같다.

<표 6> 정부간행물의 자료유형별 분석

자료 유형	인용문헌수 (%)
일반간행물	515 ( 23.3)
보고서	454 ( 20.5)
정기간행물	384 ( 17.4)
통계	335 ( 15.2)
연감	102 ( 4.6)
행정자료	93 ( 4.2)
사법자료	78 ( 3.5)
교육자료	73 ( 3.3)
법령	56 ( 2.5)
백서	53 ( 2.4)
편람, 규칙, 규정	25 ( 1.1)
의회자료	5 ( 0.2)
기타	37 ( 1.8)
계	2,210 (100.0)

39) 김영신, “대학도서관의 정부간행물 장서개발연구,” 도서관학논집 제29집 (1998년 겨울호), p.15

<표 6>은 정부간행물의 인용분석 결과 일반간행물은 515(23.3%), 보고서 454(20.5%), 정기간행물 384(17.4%), 통계자료 335(15.2%) 순으로 많이 이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4가지의 자료유형이 사회과학분야에서 인용된 정부간행물 2,210개 중 1,688(76.4%)개 인용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김영신<sup>40)</sup> 경제학박사학위논문 77편에서 인용된 총 312종의 정부간행물 중 통계류가 39종, 연감류가 9종, 나머지 2,464종이 단행본이나 부정기간행물로 밝혀진 것과 유사한 결과이나, 조영주<sup>41)</sup>가 정부간행물 이용행태를 알아보려고 부산대학교 교수들을 대상으로 행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밝혀진 통계, 센서스 자료 순의 연구결과와는 다르다. 또한 허논<sup>42)</sup>의 연구에서 정부간행물 중 주로 이용되는 자료유형은 조사데이터, 연구 및 기술보고서, 사료적 가치가 있는 자료 순서로 조사된 것과는 다른 결과였다.

자료유형별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사항은 많이 발행되는 자료유형일수록 연구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자료유형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다시 말해서 정부간행물 중 가장 많이 발행되는 자료유형은 보고서(36.1%), 통계자료(12.1%), 일반간행물(10.9%)<sup>43)</sup>로 나타났는데, 분석결과 주로 이용되는 자료유형이 일반간행물, 보고서, 정기간행물, 통계자료로 나타났다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대부분의 정부간행물이 위와 같은 유형으로 발간되는 이

유도 있지만 많이 발간되는 자료유형일수록 자료를 구하기가 쉽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분석결과 중 특이할 만한 사항으로는 기타 자료 중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자료의 이용을 들 수 있는데, 최근 1~2년 사이에 인터넷을 이용하여 정부간행물을 이용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는 아마도 컴퓨터를 이용한 정보검색의 대중화와 인터넷의 상용화에 따른 결과라고 해석된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 다른 결과가 나타난 원인분석과 같은 깊이 있는 분석은 다음으로 미루고, 장서개발에 중요한 정보가 되는 빈번히 이용되는 정부간행물 자료유형의 결과만을 제시하려 한다.

#### 4.2.2 정부간행물의 기관별 인용분석

본 연구에서는 정부간행물의 발행기관을 국립영상간행물제작소에서 발행한 「정부간행물 목록」을 기준으로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정부투자기관, 정부유관기관으로 구분하였다.

대전·충청지역 전문대학의 사회과학분야에서 인용한 정부간행물을 정부발행기관별로 살펴보면 <표 7>과 같다.

<표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사회과학분야 논문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정부간행물의 발행기관은 행정부이다. 행정부에서 간행한 정

40) 김영신, 전계논문, p.15

41) 조영주, 전계논문, p.46

42) Hemon & Purcell., 전계서 p.30

43) 국정홍보처 정부간행물 제작소, 전계서, p. 13 참조)

<표 7> 정부간행물의 발행기관별 분석

발행기관	인용건수 (%)
행정부	808 (36.5)
입법부	28 (1.3)
사법부	77 (3.5)
지방자치단체	246 (11.1)
시·도교육청	112 (5.1)
정부투자기관	247 (11.2)
정부유관기관	692 (31.3)
계	2,210 (100.0)

부간행물은 총 2,210개의 인용문헌 중 808(36.5%)개로 가장 많은 인용분포를 나타내었고, 그 다음은 정부유관기관으로 692(31.3%)개를 인용하여 행정부에 비해 다소 적은 분포를 나타내었다. 지방자치단체와 정부투자기관은 각 246(11.1%)개와 247(11.2%)개로 근소한 차이를 보였으며, 시·도교육청

112(5.1%)개, 사법부 77(3.5%)개, 입법부 28(1.3%)개는 10%도 안 되는 매우 적은 인용분포를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정부간행물을 발행하는 발행기관과 결부시켜 발행핵심기관을 알아보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고 하겠다.

1999년 판 「정부간행물 목록」에 수록된 정부간행물 발행기관을 살펴보면 <표 8><sup>44)</sup>과 같다.

<표 8>은 1998년을 기준으로,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정부투자기관, 정부유관기관에서 발행한 정부간행물은 총 4,338종이다. 정부간행물을 가장 많이 발행한 기관은 정부유관기관 1,365종(31.5%), 행정부 1,300종(30.0%), 지방자치단체 934종(21.5%)임을 알 수 있다.

<표 7>과 <표 8>의 결과로 알 수 있는것은

<표 8> 정부간행물의 발행기관 현황

단위 : 종, ( )는 구성비(%)

기관 \ 년도	1995	1996	1997	1998
행정부	1,331 (26.9)	1,337 (28.5)	1,260 (26.2)	1,300 (30.0)
입법부	84 (1.7)	126 (2.7)	135 (2.8)	72 (1.7)
사법부	41 (0.8)	32 (0.7)	26 (0.6)	31 (0.7)
헌법재판소	7 (0.1)	8 (0.2)	5 (0.1)	6 (0.1)
중앙선관위	7 (0.1)	24 (0.5)	8 (0.2)	19 (0.4)
지방자치단체	1,060 (21.4)	1,030 (21.9)	1,030 (21.5)	934 (21.5)
시·도교육청	443 (9.0)	485 (10.3)	679 (14.1)	390 (9.0)
정부투자기관	291 (5.9)	301 (6.4)	208 (4.3)	221 (5.1)
정부유관기관	1,686 (34.1)	1,354 (28.8)	1,451 (30.2)	1,365 (31.5)
계	4,950 (100.0)	4,697 (100.0)	4,802 (100.0)	4,338 (100.0)

44) 국정홍보처 정부간행물제작소, 전제서, p.10

정부간행물을 많이 발행하는 기관일수록 이용자가 선호하는 정부간행물을 많이 발행하는 발행핵심기관임을 알수 있으며, 이러한 분석결과는 정부간행물의 수서 정책을 입안함에 있어 중요한 판단기준이 된다고 볼 수 있다.

#### 4.2.3 정부간행물의 최신성 분석

지금까지는 사회과학분야 연구자들이 선호하는 정부간행물의 자료유형별, 발행기관별 인용분석 결과를 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 연구자들이 이용하는 자료의 최신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정부간행물의 발행연도를 8개 그룹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정부간행물 이용 시 최근의 자료를 이용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9>와 같다.

<표 9> 정부간행물의 최신성 분석

기 간	인용건수(%)
1 년 이내	467 ( 21.1)
2 ~ 3 년	486 ( 22.0)
4 ~ 5 년	339 ( 15.3)
6 ~ 7 년	237 ( 10.7)
8 ~ 10 년	233 ( 10.5)
11 ~ 19 년	256 ( 11.6)
20 년 이상	64 ( 2.9)
기 타	128 ( 5.9)
계	2,210 (100.0)

전문대학의 사회과학분야 연구자들은 정부간행물을 연구에 이용할 때, 2~3년 이하의 자료를 486(22.0%)개 인용하였고, 1년 이내의 자료를 467(21.1%)개, 4년 이상 5년 이하의 자료를 339(15.3%)개, 11년 이상 19년 이하는 256(11.6%)개, 6년 이상 7년 이하의 자료는 237(10.7%)개, 8년 이상 10년 이하는 233(10.5%)개, 20년 이상은 64(2.9%)개, 기타<sup>45)</sup>가 128(5.9%)개이다.

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연구자들은 2년 이상 3년 이하의 자료를 가장 많이 인용(22.0%)하였는데, 이는 1년 이내의 자료 인용 비율에 비해 0.9% 높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최은주<sup>46)</sup>가 연구에 이용되는 자료의 최신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행한 인용분석 결과와는 많은 차이가 있다. 최은주의 인용분석 결과에서는 2~5년 내에 출판된 자료를 68% 이용하여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최근 1년 이내에 출판된 자료가 27.2%, 그리고 최근 5~10년 사이에 출판된 자료가 2.9%, 10년 이상의 출판자료가 1.9%를 차지하여 5년 이내 출판된 자료의 이용률이 95.2%에 달하여 사회과학분야 연구자들도 자료의 최신성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차이 점은 최은주의 연구는 사회과학연구자들이 이용하는 모든 자료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정부간행물을 대상으로 한 결과와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허논<sup>47)</sup>이, 미국의 경우에는 발간된 지 3년

45) 발행년 미상이나 발행년을 표기 하지 않은 자료는 기타로 분류하였다.

46) 최은주, 전계논문, p.20

47) Hemon & Purcell, 전계서, p. 34

이 지난 정부간행물은 거의 사용되지 않으며 5년 이상 된 자료는 폐기 고려대상이 된다고 발표한 것과는 상당히 다르며, 정부간행물을 이용하는 연구자들이 대부분 최신의 자료를 이용할 것이라는 가정이 잘못되었음을 알려 주는 결과이다.

사회과학 연구자들이 최근 2~3년 이내의 자료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현상은 최신의 자료를 수집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본 연구자는 지방 전문대학의 사회과학 연구자들이, 출판된 정부간행물의 홍보부족으로 서지정보를 알 수 없어 최신성 있는 자료를 이용하지 못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간행물 인용빈도의 최신성 분석에 있어서 특이할 만한 사항으로는 인용된 자료가 어느 특정 기간의 자료를 집중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20년 미만의 자료를 고르게 이용하였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이는 아마도 자료의 최신성에 의미가 있는 자연과학의 학문적 특성과 달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필요로 하는 사회과학분야의 학문적 특성과 관련이 있으며, 사료적 가치가 있는 자료를 필요로 하는 연구자들의 연구주제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 V. 결 론

정부가 국민에게 국가정책을 홍보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한 방안으로 발행되고 있는 정부간행물은 정부의 역할과 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그 출판량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부간행물은 학술 연구를 수행하는 전문연구자들에게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가장 포괄적인 정보원인 동시에 신뢰성 있고 권위 있는 전문적인 1차 자료이다. 이와 같이 일반간행물과는 다른 여러 가지 특징을 갖고 있는 정부간행물은 현재의 발행 및 유통체계로는 연구자들의 다종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간행물의 발행 및 유통 체계에 대한 여러 문제점들은 문헌조사를 통해서 살펴보았다. 정부간행물의 이용실태 조사를 위해서 대전·충청지역 14개 전문대학의 사회과학분야 논문을 대상으로, 논문에 인용된 참고문헌의 인용분석을 시도하였다. 사회과학 연구자들의 정부간행물 이용조사를 위해서 실시한 인용문헌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과학분야 논문을 대상으로 정부간행물의 인용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조사 분석 대상논문을 사회과학과 기타분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조사분석 대상 논문은 총 1,881편으로, 사회과학분야 논문은 649(34.5%)편이고 기타분야의 논문은 1,232(65.5%)편이다. 총 1,881편의 논문에 나타난 인용문헌 수는 33,124개로 사회과학분야가 14,423개의 참고문헌을 인용하였고, 기타분야는 18,701개를 인용하였다. 33,124개의 참고문헌을 언어별로 구분하면, 외국서가 17,642(53.3%), 국내서가 15,482(46.7%)개로 나타났다. 인용된 국내서 15,482개를 자료유형별로 살펴보면, 단행본

5,602(16.9%), 정부간행물 3,360(10.1%), 학술지 2,714(8.2%), 학위논문 1,836(5.5%), 정기간행물 769(2.3%), 대학간행물 717(2.2%), 기타가 484(1.5%)개로 조사되었다.

둘째, 기초조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사회과학분야 논문 649편이 인용한 참고문헌은 14,423(43.5%)개 이다. 이 중에서 인용된 정부간행물은 2,210(15.3%)개로 나타났다. 기타분야의 논문 1,232편에서 인용한 참고문헌은 18,701개로 이 중에서 인용된 정부간행물은 1,150(6.2%)개이다. 사회과학분야와 기타분야의 정부간행물 인용빈도는 9.1%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사회과학분야 논문들은 기타분야 논문들에 비해 정부간행물을 많이 인용하였다.

셋째, 14,423개의 사회과학분야 논문의 참고문헌을 자료유형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서양서 5,974(41.4%), 단행본 3,111(21.6%), 정부간행물 2,210(15.3%), 학위논문 933(6.5%), 학술지 807(5.6%), 정기간행물 373(2.6%), 대학간행물 381(2.6%), 동양서 316(2.2%), 기타 318(2.2%)로 나타났다. 사회과학분야 인용분석 결과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가장 많이 인용된 자료는 서양서이다. 사회과학분야 연구자들이 외국서를 43.6% 인용한 것에 비해 기타분야 연구자들은 60.7% (표 3 참조) 인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과학분야 연구자들은 기타분야 연구자들에 비해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참고할 때 국내서와 외국서를 고르게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결과이다.

넷째, 사회과학분야에서 인용된 정부간행물 2,210개를 대상으로 “정부간행물 유형 분

류표”에 따라 자료유형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연구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정부간행물의 유형은 일반간행물 515(23.3%), 보고서 454(20.5%), 정기간행물 384(17.4%), 통계 335(15.2%), 연감 102(4.6%), 행정 93(4.2%), 사법 78(3.5%), 교육 73(3.3%), 법령 56(2.5%), 백서 53(2.4%), 기타자료 37(1.8%) 편람, 규칙, 규정 25(1.1%), 의회 5(0.2%)자료로 조사되었다.

다섯째, 정부간행물의 발행 기관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행정부 808(36.5%), 입법부 28(1.3%), 사법부 77(3.5%), 지방자치단체 246(11.1%), 시·도교육청 112(5.1%), 정부투자기관 247(11.2%), 정부유관기관 692(31.3%)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로 볼 때 연구자들은 주로 행정부와 정부유관기관에서 발행되는 정부간행물을 많이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섯째, 인용자료의 최신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정부간행물의 발행시기별 이용도를 조사한 결과 1년 이내 467(21.1%), 2~3년 486(22.0%), 4~5년 339(15.3%), 6~7년 237(10.7%), 8~10년 233(10.5%), 11~19년 256(11.6%), 20년 이상 64(2.9%), 기타 128(5.9%)개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결과로 정부간행물 이용 시 어느 특정 기간의 자료를 집중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20년 미만의 자료를 고르게 이용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사회과학분야의 학문적 특성과 연구자들의 연구주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상에서 제시된 결과를 바탕으로 이용자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정부간행물

의 장서개발을 위하여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공중파나 인쇄매체를 통하여 정부간행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정부간행물에 대한 종합적인 서지도구 개발 및 보급으로 정부간행물의 이용을 극대화시켜야 한다.

둘째, 인쇄매체 중심에서 탈피하여 전자매체 중심의 정부간행물 생산을 적극 추진하고 인터넷을 통한 자료의 공개 범위 또한 확대시켜야 한다.

셋째, 도서관의 수서 담당자는 정부조직개편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기관의 신설과 통·폐합 시 기관에 접촉하여 배포 리스트에 등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담당자는 자관에서 이용자의 요구가 예상되는 정부간행물 유형 및 발행기관을 참조하여 연구정보원으로 가치 있는 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정책적인 지원의 요구 및 정부간행물에 대한 홍보를 능동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끝으로 정부간행물의 가치에 대한 사서개인의 인식 전환이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며, 본 연구자의 연구결과를 참조하여 정부간행물에 대한 효율적인 장서개발을 구축하여 최선의 서비스로 이용자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 국내문헌

강미혜. "정부간행물의 출판현황과 도서관의 정부간행물 운영실태분석", 도서관학 논집 23집(1995).

국정홍보처 국립영상간행물제작소 편. 1998년판 정부간행물 목록. 서울 : 국정홍보처, 1999.

김영신. 비통보식 조사를 통한 대학도서관 참고봉사 평가.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95. 박사학위논문.

\_\_\_\_\_. "대학도서관의 정부간행물 장서개발 연구." 도서관학논집 제29집(1998년 겨울호).

박금순. "정부간행물의 도서관 배포제도에 관한 고찰 : 일본도서관 및 일본제도를 중심으로," 도서관학 연구지 (송의여전), 18(1992.9).

배영환. "한국 정부간행물의 발간 실태분석과 이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도서관 사공복회, 문승주. "우리나라 정부간행물의 유통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도서관학 논집 제26집(1997년 여름호).

사공철 등편. 도서관학·정보학 용어사전. 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1986.

신숙원, 이순자 공편. 도서관과 자료의 활용법. 서울 : 서강대학교 출판사, 1992.

유재욱. "도서관학 학술지에 나타난 인용행태 분석," 정보관리학회지, Vol.10 No.2(1993. 12).

정진식, "사회과학문헌 인용분석연구: 경제학, 문헌정보학, 행정학 중심," 정보관리학회지, Vol.10, No.2(1993. 12)

최은주. "사회과학 연구자의 정보이용행태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Vol. 30, No.4(1996).

홍명자. "정부간행물 관리에 관한 고찰 : 제도적 측면에서", 효성여자대학교 연구논문집 ; 사회과학편. 제24집(1982).

◇ 국외문헌

上田修一 等編. 理工學文獻の特色と利用法. 東京 : 勁草書房, 1987.

植村長三郎 編著, 圖書館學 . 書誌學辭典. 東京 : 有隣堂印刷株式會社出版部, 1967.

黒木努 編. 政府刊行物 概説. 東京 : 帝國 地方行政學會, 1971.

ALA. The ALA Glossary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Chicago: ALA., 1983.

IFLA, IFLA official publication section newsletter 12, 1984,

Jo Bell Whitlatch. "Government publication." RQ, 18(1979)

P. Herson and C. R. McClure, "GPO" Depository Library Programs : Building for the Future," Library journal, Vol.113 (1988).

Peter Herson, Use and Non-use of Government Publications by Social Scientists in Selected Academic Institution. Doctoral Dissertation, Indiana University, 1978.

Rae Elizabeth Rips, "United States Government Publications", Drexel Library Quarterly, Vol.1, No.4 (Oct. 1965)